Alo . Bristy , Joy . Keya . Shurjo

목차

- 활동 일정
- 활동 모습
  - Dahapara NFPE School
  - Dahapara Clinic
  - Korean Class / English class
  - Art Class / Taekwondo Class
  - Host family
  - Work to build Youth forum member room / library
  - 환경의 날 350ppm
  - 환경 영화제
  - 중간평가
- 생활 모습

  여는 나눔, 닫는 나눔

  5월의 Keyword : 350ppm

  이번 달 hot topic

활동일정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Korean class	2 Dahapara	3	4 Korean class	5 English class Environmental movie
6 Dahapara English class	7 Dahapara	8 Korean class	9 Dahapara	10	11 Korean class	12 English class Environmental movie
13 Dahapara English class	14 Dahapara	15 Korean class	16 Go to host family	17	18 Korean class	19 Art class Environmental movie
20 Dahapara English class	21 Dahapara	22 Taekwondo class	23 Holiday : Buddah Purnima	24	25 Korean class	26 Clean campus Art class Environmental movie
27 Dahapara English class	28 중간평가	29 중간평가	30	31		

RaonAtti

활동모습

RaonAtti

Dahapara NFPE School

주 3회 월,화,목

- 영어, 수학, 체육, 음악 전과목 class 2, 3 / class 1, baby로 Level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한 계획을 짜고 진행하고 있다.
- 진주 YMCA에서 기증받은 아이들을 위한 옷을 아이들의 키와 사이즈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주었다.

RaonAtti

Clinic

- Dahapara clinic 의사선생님, 간호사 선생님과 마을을 방문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질병 및 건강 상태, 가족계획 등을 조사하고 있고 말라리아 예방법, 손씻기 등을 알리고 있다.
- Clinic이 지어진 지 1년밖에 안되었고 홍보도 덜 되어 사람들이 Clinic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 Dahapara clinic에서는 약값이 시중 가격보다 30% 저렴하다는 점 등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Clinic 홍보도 함께 하고 있다.

주 3회 월,화,목

RaonAtti

Class

❖Korean Class

매주 토요일
3시~ 4시30분

- 환경의 날 콘서트를 위해 한국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을 함께 부르고, 노래의 의미, 단어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English class

매주 월요일
3시~ 4시30분

-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study모임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날의 수업 진행자를 정하고, 번갈아 가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게임이나, 그날의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수업이 진행되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RaonAtti

Class

❖ Art class

매주 일요일
4시 ~5시 30분

- 많은 마을 청년들이 미술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잘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미술을 접하고, 느끼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태권도

매주 수요일
4시~ 5시 30분

- 날씨가 너무 더워서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었지만 참여하는 학생들이 태권도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진행하기가 수월했다. 기초 동작들을 위주로 가르치고 있다.

RaonAtti

Host family

5월 16일 ~

- RaonAtti 단원들이 마을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 가족의 일원이 되어 살게 되었다.
- 정해진 일정보다 훨씬 빨리 시작하게 되어 처음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잘 적응했다.
- Host family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모든 단원들이 함께 지냈지만 Host family를 하면서 서로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활동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

RaonAtti

Host family

Alo mrong

YMCA

BAZAR

Joy Rangsha

Bristy Areng

Surjo Sangma

Keya Rema

RaonAtti

Work to build Youth forum member room / library

필요할 때마다 ^^

- YMCA 내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공간을 Youth forum members를 위한 방과 도서관으로 만드는 일에 지난 달부터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벽돌을 옮기고 쌓는 단계이다.

환경의 날 / 350ppm 캠페인

- 환경의 날을 홍보하는 배너와 망토를 제작하였다. Dahapara NFPE school 에 가고, 오는 길에 망토를 등에 달고 다니며 환경의 날, 350ppm을 홍보하고 있다.

- Art Class시간에 youth member들과 재활용품 등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전시 하기로 하였다.

- Youth member들과 환경의 날에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하고 콘서트를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RaonAtti

환경영화제

매주 일요일
7시 ~ 8시

- 350 ppm캠페인의 일환으로 매주 일요일 환경의 날의 D-day를 세면서 환경영화를 상영하였다. (Planet earth : BBC) 그 동안 노트북 모니터를 이용하여 봤는데, YMCA에서 빔 프로젝터를 구입하여 마지막 영화는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상영하였다.

RaonAtti

중간평가

5월 28,29일

- YMCA 전국연맹의 정동민 간사님, 진주 YMCA의 이미라간사님, 울산YMCA의 주은지간사님이 Birisiri YMCA에 방문하셨다.

❖ 28일

Youth forum 이 진행한 Cultural program을 함께 하고, 그룹 면담, 개인 면담 시간을 가졌다.

❖ 29일

- 오전에 Dahapara project area 의 수업과 마을 방문에 간사님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단원들의 Host family를 방문하고, Host family members와 Birisiri YMCA 이사회가 모두 참여한 자리에서 중간 평가를 진행하였다.

RaonAtti

생활모습

RaonAtti

닫는 나눔,여는 나눔

5월1주차

Dahapara	Clinic - 아직 가는 목적에 대해 잘 모르겠다. 마을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다. NFPE School- 공책과 펜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수학 : 덧셈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을 따로 구별해서 하니 수업 진행이 빨라졌다.
펜팔	원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신청을 받자.
한국어교실	그림카드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단어 수 가 많아 지루할 법도 한데 그림을 보면서 단어를 익히니 지루함이 덜했던 것 같다. 송희 혼자서 선생님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을 이끄는 것이 조금 힘들다. 고운과 함께 선생님을 하는 것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더 쉬울 것 같다. 곧 태권도 교실도 시작하게 되는데, 한국어 교실 수업 하루를 태권도 수업으로 대체하는 것 좋을 것 같다. -태권도를 하게 되면 여자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 체육 등 여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도 태권도 교실에 섞어보는 건 어떨까.
350ppm	영화상영 - 매주 일요일 진행되고 있다. 꽃 나눠주기 - 새싹이 자라고 있음 연극 - Youth forum과 함께 진행하고 싶다. 망토로 350ppm 홍보하기. 콘서트-youth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환경의 날 축제 계획할 때 이야기 해 보자. 환경의 날을 몇 일 동안 기념할지 생각해 보자. - 2일 동안 학교들을 돌아다니며 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영화 상영하는 것이 어떨까. 전기가 되지 않으면 지구시민 교육 같은 것을 계획해보자. (지구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상품은 비누나 칫솔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서약서 같은 것으로 캠페인을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닫는 나눔,여는 나눔

5월2주차

Dahapara	미술 - 2,3학년은 수업 진행이 수월했다. 선생님이 수업 진행을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차분했던 것 같다. 영어 - 2,3학년은 무난하게 했던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단어위주로 많이 배웠다, 신체용어, 모양용어를 배웠다. 1학년이랑 baby들은 너무 집중을 하지 않는다. 수학- 2,3학년 아이들은 구구단을 하루에 1단씩 배우고 있다. 1학년, baby들은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 숫자 세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음악 -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노래를 아이들과 함께 불렀고, 다음 시간에는 음표 그리기를 해 볼 예정이다. 체육 - 아이들이 체육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수업 참여보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 게임을 조금 변형한 게임을 수업시간에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다.
Clinic	우리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이나 위생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 주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 또, 우리가 돌아다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Dahapara clinic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점 중 하나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 좋았다.
한국어교실	준비가 부족했던 이유도 있는 것 같지만, 문법을 가르치려 하니 설명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문법만 가르치고,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함께 가르쳐 보려 한다.
기타	진주 YMCA에서 기부받은 아이들 옷 Dahapara에 나누어 주자. ·중간평가 날짜가 정해졌으니 중간평가 준비도 시작하자. ·드라마, 콘서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팀 안에서도, Youth forum 과도 이야기 나누어야 할 것 같다. -쓰레기 줍기 캠페인 환경의 날에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면 좋을 것 같다.

RaonAtti

닫는 나눔, 여는 나눔

5월3주차	
Dahapara	· Clinic 가서 조사한 내용들을 통계 내서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다.
한국어교실	-야, -아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 “브루슬리야”, “송희야”와 같은. 안부를 물을 때,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 나누면 더 친근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노래 연습이 한번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서 함께 연습하는 시간 한국어 시간에 가지면 좋을 것 같다.
350ppm.	무덤근처 무대를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 무대 근처에는 전기를 끌어올 만한 시설이 없는데, 영화 상영도 하고 콘서트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발전기를 빌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진행하려는 프로그램 시작 시간, 진행 시간도 정해야 한다. 날씨 때문에 점심 이후에 프로그램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2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시에 영화시작. 4시에 부스시작 6시에 콘서트시작. 진행하기로 했던 연극의 대상은 컴패션 아이들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극으로 계획 변경. 학교들이 다 방학해서, 환경 주간에 학교를 찾아가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350ppm 콘서트 때 우리가 해야할 일 : -EM 용액 준비하기. -식혜는 하루 전에 준비하기. -꽃 나눠주기 -구체적인 홍보 포스터 만들기. 각자 부스에서 한 명씩. 350ppm 도장을 찍어줘서 마지막에 부스에서 문제를 다 맞추면 꽃을 나눠주는 것으로. 무덤 근처 무대를 1순위로 하고 우천시에는 YMCA로 장소를 옮기자.

RaonAtti

닫는 나눔, 여는 나눔

5월4주차

Dahapara	-NFPE •과학 : 아이들 과학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하니 아이들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험에 관심을 보이고, 신기해 하니 좋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생각이다. •수학 : 2,3학년은 어떤 식으로 수업해야 할지 길이 잡히는데 1학년, Baby는 아직 잘 모르겠다. •영어 : 1학년, baby들에게 율동과 함께 영어 노래를 가르쳐주니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다만, 영어 가사를 잘 익히지 못하는 것 같아 반복이 필요하다. "수업"말고 다양한 도구나 주제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니 아이들이 더 수업에 흥미를 보이는 것 같다. •음악 : 줄을 안 선다. -Clinic •질문지 만든 것 좋은 것 같다. Clinic 홍보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한국어교실	우리가 노래를 알려주는데, 노래 내용을 해석하고 단어를 알아내는 데 학생들이 한 명도 집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흥미가 없어서 집중을 안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디폰의 말에, 화가 났다. 우리가 한국어 교실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보다는 가사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 속상했다.
미술 교실	학생들이 재료에 대해 부담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양한 재료를 쓰겠다고 수업시간에 언급했던 의미는 그게 아니었는데...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 워밍업 정도? 잘 된 것 같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어서 현지어로 수업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태권도교실	학생들의 의지가 높아서 수업이 기대된다. 여자 아이들은 옷이 불편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옷을 빌려 주면 어떨까? 혹은... 움직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는 걸까?
350ppm	-어디서 할 것인가? YMCA 우리는 YMCA에 소속된 자원활동가니까, YMCA로 사람을 모아오는 것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 YMCA에서 한다면, 마을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YMCA에서 하는 걸로.

RaonAtti

Keyword : 350ppm

우리의 메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 오기 전부터 350ppm에 대해 계획하고 있었고, 매주 회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눴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다. 환경의 날이 다가오면서 우리는350ppm 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었다.

우리가 계획하던 프로그램에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하나 더해지다 보니, 계획이 생각보다 커지게 되었다.
다들 잘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다.

환경의 날 현수막 직접 제작.

환경관련 퀴즈를 맞추면 도장을 하나씩 받아 350ppm을 완성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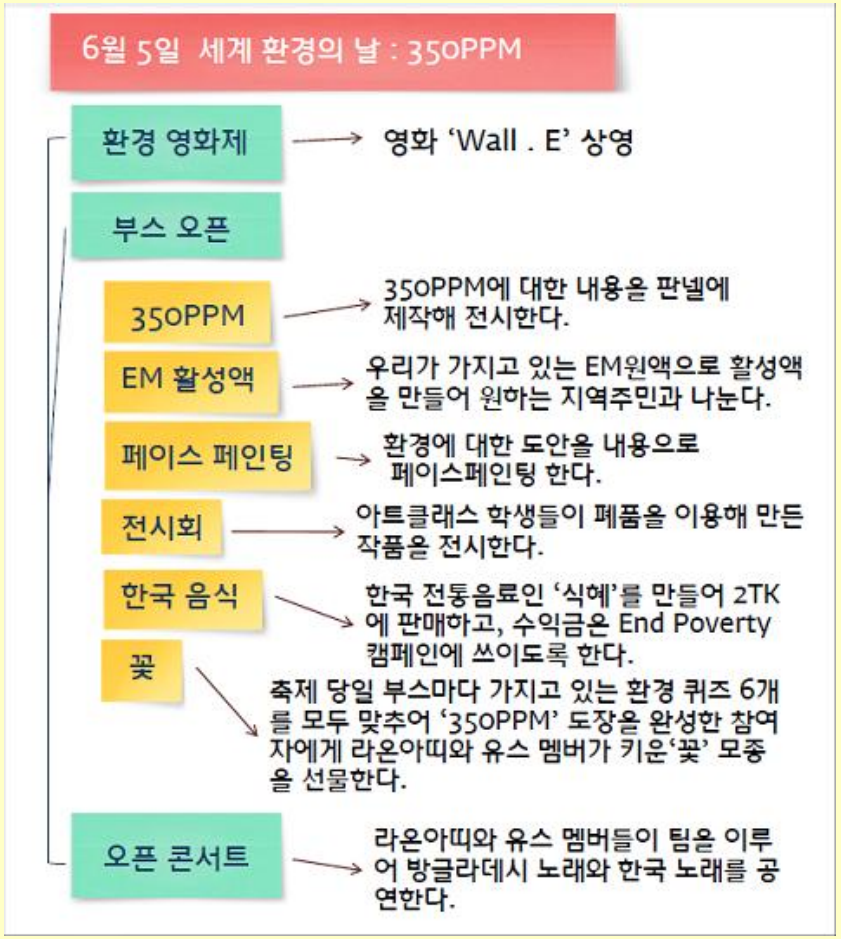
마을을 방문하여
환경의 날 프로그램에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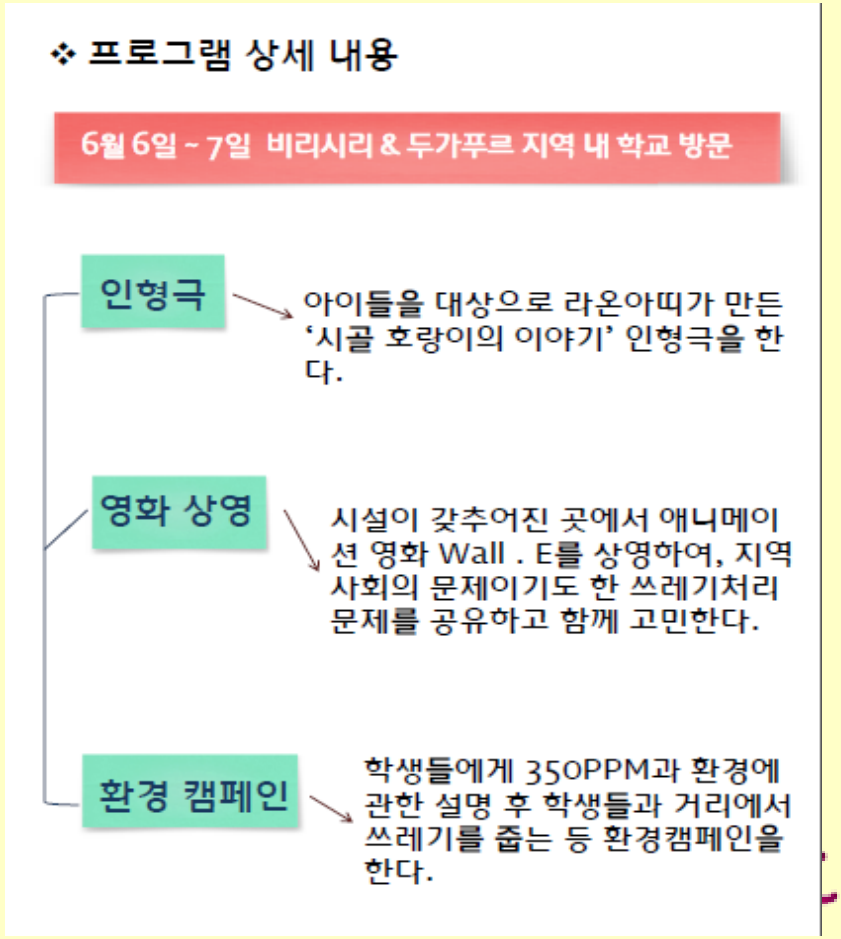
부스의 설명 판넬을 현지어로 제작.

RaonAtti

Keyword : 350ppm

- 프로그램 목적
- 축제 형식을 빌어 지역 주민들에게 세계 환경의 날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환경에 대한 지식들을 보다 쉽게 접하고 즐기도록 한다.





Hot Topic 1

Youth Forum Members는 우리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라온아띠 프로그램의 목적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Youth

350 콘서트 전날 갑작스럽게 공연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에 한 유스 멤버가 콘서트는 간단하고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말했고 그 이유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 콘서트는 진주에서부터 계획하고 함께하려고 준비해온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유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또한 소통의 문제 같다. 그렇다면 유스들이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라온아띠 프로그램의 목적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우리를 단순히 놀다가 가는 외국인 친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또 우리가 오기 전에 유스 멤버들 끼리 라온아띠라는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 한 시간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전 기수 보고서를 보다가 중간평가 때 '라온아띠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유스들은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 전기수와 같은 고민이 연속으로 생긴다면 문제가 아닐까?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를 유스들과 공유하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자.

RaonAtti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유스들과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었다.

유스들과 이야기 나누었을 때,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단면만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라온아띠라는 이름만 보고 좋은 친구라고 하면서 관계 맺기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

Youth

우리들, 라온아띠가 좋은 친구라는 뜻을 가져서 우리만 좋은 친구여야하고 우리만 노력해야 하는지, 우리만 마을 가고 누군가를 찾아가야 하는지, 다른 지역이 아닌 이 지역에 와서 고마워해야 하고, 운이 좋다고 여겨야 하는지, 당연하게 유스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라온아띠가 없어도 유스멤버들끼리 라온아띠의 프로그램들, 활동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유스들 또한 해야 하지 않은가. 유스들이 우리의 활동에 대해 관계 맺기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계 맺기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점만 보고 이야기한다고 느껴졌다.

RaonAtti

Youth

유스들이 클래스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너네 도와주는 거야'라고 말했다. 한국어 클래스 오는 것도, 다른 클래스 오는 것도 ,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클래스를 원해서 참석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도와주는 거라고 말을 하면 같이 하는 것이 아닌 그저 프로그램의 도우미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유스 포럼 멤버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외국인인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유스 멤버들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확장되기도 한다. 유스 멤버들로 인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하지 않나. 우리는 유스 멤버들을 가능한 많이 끌어와야 하고, 유스 멤버들과의 멤버십 향상을 위해 클래스를 한다고 생각한다.

언어의 문제 때문인지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 유스들과 공유하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완전히 풀린 것 같지 않아 마음이 좋지 않다.

클래스들은 멤버십만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클래스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은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클래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가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기 전에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듯이 이 곳 사람들, 특히 우리와 활동을 같이 하게 될 사람들 또한 우리와 만나기 전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RaonAtti

Hot Topic 2

호스트 패밀리를 시작한지 2주가 지났다. 우리가 호스트 패밀리 안에 들어가는 이유와 처음의 목적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호스트 패밀리에서 지내면서 가지게 된 생각이나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Host Family

현지 간사에게 호스트 패밀리를 하는 목적에 대해 들었을 때, 가로 전통과 이 곳 문화를 더 배우기 위해서라고 들었다. 하지만 지금 가로 전통을 배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전통과 문화를 더 알고자 한다면 이 곳 culture center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우리 집은 샤워기가 없어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의 소중함을 느꼈다. 물을 퍼서 쓰다 보니 내가 얼마큼 쓰는지 눈에 보인다. 물을 쓰는데 요령도 생기고, 익숙해져서 처음보다 점점 덜 쓰게 된다.

하지만 생활 면에서 이 곳 생활을 배우길 바라서 온 것이라면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책상에 앉아서, 박물관에서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함께 집에 살아야만 알 수 있는 것들, 사소한 것이고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냥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다음 기수 호스트 패밀리를 정할 때 여자단원이 배정받는 집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마을에 친구가 많았다면 좋았겠지만 거의 없어 집에 돌아갈 때마다 항상 유스 멤버나 라온아띠 남자단원이 데려다 줘야 하는데, 번거롭게 구는 것이 아닌지 미안함을 느낄 때가 많다.

엄마가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일하시는 모습을 본다. 우리는 청소기나 세탁기 쉽게 쓰지만 이곳은 모두 손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 시간도 더 걸린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집안일은 한국보다 더 힘들고 번거로운 일 인 것 같다.

RaonAtti

Host Family

어디 행사나 축제에 갈 때 나에 대해서 소개해주시고, 우리 스케줄이 없을 때는 최대한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시는 것이 느껴진다. 그럴 때마다 나 또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낀다.

전에는 다른 단원이 호스트 패밀리들과 잘 지내는 것에 대해 부러워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 집만의 특징이 있고, 그처럼 다 똑같이 지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호스트 패밀리 안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관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호스트 패밀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집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신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집안 문제까지 나에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나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

마을 분위기나 현지 사람들의 생활을 보러 들어갔는데 사실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게 되었고, 우리에게 잘 해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곳 사람들의 생활을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호스트 패밀리로 인해 다른 단원의 가족들과도 더 반갑게 인사하며 지내게 되는 등, 자연스레 관계가 확장되는 것 같다.

RaonAtti

RaanAtti